

21세기의 동아시아와 한국 그리고 제주도

토론내용

1부 주제 “지방분권화 와 국제화 흐름 속에서
제주도 개발을 다시 생각한다”

발표 : 이상우 (서강대)

사회 : 고성준 (제주대)

토론 : 김동성 (중앙대) 김항원 (제주대)

토론 : 김 동 수 교수

우선 상당히 중요했던 것은 세계 그다음에 자체내의 변화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국가 기능의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제주 도민들이 주체 역량이랄까. 주체성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막연한 폐쇄적이 아니라 발전적, 창조적인 차원에서의 주체성. 주체역량이 요구된다는것, 그것은 상당히 이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국가기능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게된다면 우선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국가라는 존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시민사회의 필요성에 따라 생겼고 지탱해 나가는 제도요 또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국가중앙정부가 모든 시민사회의 생활양식과 또 생활방법까지도 모두 규정하고 지도해 오는 것을 당연시 해 왔고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볼때도 정치현상을 분석할때 정치주체로서만, 주체라는 것은 국가로만 국가의 행위로만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일반 시민 사회의 정의 실현도 이것도 결국은 국가를 통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국가 역할에 대해 가지고 모든 것을 걸었던게 지금까지 현실입니다. 그리고 얼마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그렇지만 이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산업화, 복잡화, 다원화, 기술화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국가의 중앙권력이 이 시민사회의 모든 영역을 전담한다는게 불가능해

졌고 거꾸로 돌아가 가지고 생각했을때 이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인들이 즉 사회인들이 국가에다가 모든 책임을 묻고 국가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그런시대는 사라져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뭐가 남느냐, 결과적으로는 시민사회자체 내에서 자발적인 조직이라든가 또 시민사회 내부에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 이것에 의해 가지고 자기 관리를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러한 시민적 차원에서의 발전 관계양식의 정립,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가이죠 그러니까 무슨 애기가 하면 특정국가와 사회의 질이라는 것은 결국 국가권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자체내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이고 그리고 주체적인 것이 이제 그것을 판가름 하는 시대가 점점 더 뚜렷해졌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것을 제주도하고 연관시켜 봤을때 우리 개발문제라든가 제주도의 하나의 공동체이 삶, 삶에 대한 어떤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이 기본적인 의식구조에서부터 스스로 사회자체내에서의 자기계획과 자기관리가 중요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서 저가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제주도민의 주체성, 이것이 요구되는 근거로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더 소상하게 이 교수님은 이런 것들이 폐쇄적이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점들은 강조해 주신걸로 저는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두번째로 국제화에 관련된 전망입니다. 이 국제화에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두가지 논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계가 하나의 세계 공동체를 가고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더 민족적인 국가관계를 중심으로한 민족주의적 방향으로 흘러나가게 될 것인가. 이러한 점에 대한 논쟁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를 나누어 생각해야 되는게 서구의 경우에는 분명히 세계공동체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동북아 지역이 관련된 문제에서는 향후 최소한 5~10년 1990년대에 있어서는 세계공동체를 형성하기 전단계까지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우리국가와 우리 사회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측면입니다. 저는 최소한 단기, 중기적으로는 민족주의적인 추세가 강하리라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이 과거의 역할 이것이 이제 약화내지는 점점 퇴색해 나가고 그것에 반해가지고 소련은 블라디보스톡 연설 이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의 한 국가라는 것을 강조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자기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좀 모호하게 흘러져 있는 아시아에서의 세력, 이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소련은 상당

히 적극적인 외교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은 4개 현대화, 국내적인 발전이 우선입니다마는 중국에서 계속 외교문전에서 강조하는 것은 내면적으로 중화주의입니다. 이것은 자기 문화의 우월성과 장기적으로 봤을때 중국이라는 국가와 문화의 중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과거의 미.일안보협력관계에 의존해 가지고 경제적인 실익을 얻다가 미국이 점점 거기에서 약화돼 나가자 지금 현재 일본 내부에서도 미.일안보협력체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대체 혹은 지속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논쟁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고 그 결과는 앞으로 예측하기가 힘들다마는 어쨌든간에 일본인 경우에도 대단한 민족주의적인 그러한 추세를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양식속에서 결국 이제 한국이 그 중간에 처해지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의 외교밖에 없지 않으나 이제 힘으로도 안되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외교를 펴야 되는데 여기에서 아까 이상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몇가지 처방과 저는 동의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좁혀가지고 제주도과 연관시켜봤을때 제주도가 이러한 입장에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했을때 이 교수님은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저도 적극 동감입니다. 거기에 또하나 덧붙여야 하는 것은 문화적인 상징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 도적이 많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거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우리 어릴때부터 제주도의 문화라는 대표는 도저과 거지와 문(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상징으로서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가장 기본요소를 제주도라는 문화와 지역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민족주의적 국제질서가 형성돼 있는 상태지만 여기에서 제주도가 평화의 이미지를 앞에 내세우면서 이 어떠한 평화중심적인 평화지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 말이죠. 이것은 물론 제주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중앙정부와의 관계지, 그래서 세계적인 관심을 우선 끌어나가면서 거기에서 제주 평화지대에 관련된 가능성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이 아닌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국제교류의 중심지역활, 국제회의에 관련된다든가 학술교류에 관련된다든가 통신, 해양학, 또 도서관제 이러한 연구중심의 학문적, 문화적 이러한 센탈(Cental)을 장기적으로나마 만들어 나갔을때 결국은 향미적인 그것을 고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본

주의 체제하에서 살아나갈때 경제적인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습니까.

따라서 경제적인 이익도 확보하면서 그것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란 결국은 지나친 소비관광보다는 그러한 학술적, 문화적 차원에서의 결집된 의욕 이러한 것들이 주체적으로 떠나갈때 발전, 개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그래도 이상적인 방향으로 끝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 김 항 원 교수

제주도의 특성과 한국 전체의 통합성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또 제주도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 이것들이 조화문제, 더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넓게 거기까지도 조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정책방향 모색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제주도인을 위한 제주도인에 의한 제주도 발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까마는 지금까지 제주도 개발정책에 문제점이 많았다는 것도 큰 이유중에 하나일 겁니다. 현재까지도 제주도 개발정책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정부에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시행해왔습니다. 제주도의 주산업이라 할 수 있는 관광 산업인 경우 중요한 정책결정은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그 결정과정에 주민들이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됐습니다.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었지만은 제대로 그 결정과정에 주민들이 의사가 반영이 되고 그래서 그 정책을 결정했는지 그것은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제주도의 개발정책은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소수인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주민이 2/3 정도가 제주도 개발정책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제주도 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기때문에 제주도의 개발은 제주도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제주도 주민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그 이익도 제주도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그리고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실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라든지 자본이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특히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도 그것은 주장에 그치고 있는 면도 크고 또 의식수준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 주민들은 제주도 문제해결이

나 정책결정 및 학문적인 성과에 있어서도 제주도인들이 권위보다는 타지방 사람들이 권위를 더 인정해서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또한 제주도내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제주도에 관한 연구결과 보다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수들이 연구결과를 연구의 질과 관계없이 더 믿으려하고 제주도 사람의 한 말보다는 서울 사람의 말에 더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행정관청에서도 제주도 개발에 대한 영역을 주로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에 주는 경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주도 사람 자신이 제주도를 비하한다든지 이러한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와같이 제주도 사람 자신이 자존 감정이 약하고 자기를 비하하면서 주인 의식을 가지지 못한다면 누가 제주도 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을런지 그리고 주체역량을 키울 수 있을런지 의문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인으로서의 주체성과 자존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겠고 그렇다고 편협하고 배타성을 가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개방적인 자세, 합리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개발정책은 제주도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고 그 개발이익이 도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고르게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존과 개발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의 입장은 제주도의 환경과 문화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점진적인 개발의 방향을 취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두가지만 이 교수님의 견해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주도민들이 관심과 이익을 한국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조화시키면서 보존,발전 될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두번째로 지금까지 제주도 개발하면 주로 관광개발에 치우쳐 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주민이 소득증대 사업으로는 주로 과수농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 이외에 주 소득원이 관광산업하고 감귤 그러한 농업입니다. 지금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이 만일 타결이 됐을 경우에 제주도의 과수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주도 개발하면서 우선 생각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은 제주도 주민들이 소득도 증대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그러한 국가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텐데 그러한 문제에서 무공해 공업이라든지 여러가지 얘기가 있을수 있겠습니다.

제주도 개발정책을 세웠을때 국가정책적인 입장에서 볼때 이러한 무공해 산업이

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을런지 국가 정책적으로 어느정도 충분한 배려가 있을 수 있을런지 그러한 점에 있어서도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 이 상 우 교수

국제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김동성교수께서 말씀하신건 옳은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인류 공동체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한쪽에서는 반동으로 점점 더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그러면 서로 모순되는 흐름인가 했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별로 분화됩니다. 경제적으로나 이런데서는 보편화가 되고 특히 문화적으로는 이것이 의식차원에 있어서는 거꾸로 민족주의로 분화가 되고 이 두가지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모순이 안됩니다. 요전 몽고에 갔더니 요새 열기가 대단합니다.

소련지배 70년을 받고 공산주의 70년을 하다가 거기서 헤어서 나온지 이제 이년입니다. 페레스트로이카 열풍은 소련보다 몽고가 더합니다. 그와 더불어 소련으로부터 독립이라고 하는 데 대한 강한 자의식이 반영으로서 몽고민족주의가 굉장합니다. 그 상징이 칭기스칸입니다. 자기네 내세울 수 있는 민족적 구심점이 징기스칸이니까 사방이 징기스칸 빼지를 만들어서 다 붙이고 다니고 일본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징기스칸 무덤 찾기 운동하느라고 요새 굉장합니다. 전부 복원을 하고, 옛날에 유적을 찾아내고,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국제적으로 경제발전을 해서 몽고사람들이 용단을 내리느냐 하면 자기네 일부 영토를 할양하겠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에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토가 크다 하는가죠. 156만 평방킬로인데, 동쪽땅을 잘라 줄테니까 여기에 너희들이 와서 공장을 짓고 모든 것을 진출해라 거기서 우리 배우겠다.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한쪽에는 어떻게든지 지역협력, 지역공동체, 경제쪽으로 가려고 하면서 반대로 의식차원이나 문화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민족주의가 강하게, 그 두개가 모순되는가 하면 모순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 그런 식으로 기능적 분화로 한번 생각해 줄 수 없겠는가 하는 그걸 하나로 제 얘기 해보았습니다.

김항원교수님 얘기는 제주도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을 저로서 바라느냐 하는 질문인 것 같아서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얘깁니다. 제주인이 주도하는 제주와 한국을 위한 국제적 기능을 담당하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학술·문화교육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그러니까 개발 방법에 있어서 주도권에 있어서는 제주도 사람들이 힘만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도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것은 제주도 사람들이 제일 잘 아시니까 앞장서야 되겠고 그리고 발전의 혜택은 제주와 한국전체가 같이 고르게 가야만 된다는 두번째 조건이 있고 세번째 그 기능면에 있어서는 국제적 기능을 담당하는 동아시아 전 지역에서 지리적 잇점을 생각해야 되니까요. 여기에 학술적인, 문화적인, 교육적인 지역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게 제 얘깁니다. 제주도의 특성을 압축을 해서 표현하라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조건이고 하나는 지리적 위치입니다. 이 두가지 아니면 제주도가 특별히 남앞에 내세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면에서 이 두가지가 결국은 소위 제주도가 자랑할 수 있것은 두가지거든요. 이것은 함부로 바꿀수도 없는 겁니다. 이 자연과 지리적 조건은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동북아 협조체제에서 가장 여러나라가 접근이 쉽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가운데 있고, 위치를 살려야 됩니다. 지금 예를들면 미국에서 하와이를 쓰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 그 기능이 이 지역에서는 더 커지겠죠. 하와이가 가진것도 지리적 위치와 조연조건 두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선 1차적으로 자연을 가지고 관광을 했고 그러나 점차로 관광에서부터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 학술·문화·교육센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북아지역이 한 지역공동체를 이룬다면 여기서 여러가지 협조체제가 나와야 됩니다. 문화적인, 학술적인 그리고 사람들의 상호교육이 필요합니다. 국제화를 위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데는 지리적으로 서로가 접근하기 가능한 곳이니까 그런데 기여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이 순수 관광보다는 월등히 수익성도 괜찮고 쉽게 말하면, 그 대신에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복합적 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지원할만한 여러가지 교육훈련기관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동시통역 대학원 같은 것도 들어와 있어야 되고 하와이에 있는 기관같은 큰 교육기관도 있어야 되고 참고로 하와이에 있어서는 해마다 전국 대규모의 회의가 약 4천회건이 열립니다.

관광객은 없고 자연관광객은 별로 없습니다. 일단 회의에 참석와서 관광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쉽지 4천전이 천명단위 이상의 회의가 열린다고 그러면 그것은 보통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기서 생산업을 가지고 과연 제주도가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농업에 관련한 비교우위를 따져봐 가지고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 흐름을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가망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바나나를 키워가지고 대만과 경쟁을 합니까. 있을수가 없거든요. 파인애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와이나 이쪽 열대지방과 경쟁을 합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논농사 가지고 경쟁할 수도 없습니다. 캘리포니아하고, 그러니까 농업해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목축을 얘기하지만 다시 몽고애길 들어봅니다. 몽고 156만 평방킬로중에 85%가 초원입니다. 어떻게 초원과 여기에 중산간 지대 저 초원가지고 목축업을 경쟁합니까, 국제화 시대가 되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나가야 합니다. 이 지리적 위치와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크게 본다면 생산업이 아니니까 서비스업입니다. 그러나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여기서 놀다가는테라는 생각이 아니고 그것을 좀더 부가가치가 높으면서 기여할 수 있고 그리고 전세계, 인류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역시 그런 방향이 아니겠는가. 대규모 국제회의 센터라든가 기능인력을 동남아시아까지 확장 훈련시켜서 보내는 데라든가 예를 들면 KBI, KIST에 이미 제 3세계 사람들을 불러다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을 이리저리 훑어서 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 쯤에 그런 기술센타를 만들고 동아시아, 여러가지 그런것을 모아서 한데 모아 놓는다고하면 그것은 제주도를 위해서도 좋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한국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이 조금 아까 김동성박사께서 말씀하신 평화지대하고 통하는 것 같고 김항원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제 대답도 될 것 같아 우선 이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 문대탄 (언론인)

저희들이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문제로 삼아야 할것은 개발이익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개발내용이 어떤것이나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우리가 교육기술센터가 되고 정보문화의 국제적인 교육센터가 된다면 그것이 완전히 육지재벌에 의해서 독점이 되고 육지에 우수한 교수들이 또는 외국사람들이 그 자리를 독점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는 대단히 기쁘겠습니다. 문제는 제주도의 개발이라고 하는것이 제주도민이 교육은 말할것도 없고 대한민국의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또는 세계적인 평화의 방향으로 가는 그러한 노력하고는 관계없이 도박쟁이, 노름꾼쟁이들을 위한 호텔이나 카지노만을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문제되는 특조법도 결국 실지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골프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장애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민들이 지금 반발하는 것은 그것이 육지자본들이 이익을 다 먹어간다,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내용이라고 하는것이 우리가 여기 사는 사람들이 자식을 키울 수 없을 정도로 퇴폐적인 관광이나 또 소비지향적인 그런 관광을 하는 쪽으로만 정부가 개발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주도 종합개발을 보면 거기에 관광은 문제가 되지만 제주도민 한국 또는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그런 문화적인 개발계획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교수님이 국제회의 센터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의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의 지원과 또 하나는 가장 구체적으로 제주대학에 혁신적인 발전, 말하자면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하면 제주대학에 과학이공계통을 더 확대한다든가 완전 기술화시스템으로 해서 정말 제주도를 개발하겠다고 그러면 국제중심지고 이홍구장관이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주도의 의과대학이라도 만들어서 정말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붐비는 그러한 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교육개발내용이지 개발이익이 누구에게 가느냐하는 그 문제는 사실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충 : 이 상 우 교수

구체적으로는 제주대학교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대학교를 특화했으면

하는 게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 국립대학이 여러개 있는데 제주도를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국제화의 선진기지로 쓴다고 하면 여기에 국제대학 같은 것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면 우리말이 아니고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대학 그래서 외국사람들이와서 배울수 있는 대학, 이렇게 해서 특화를 해야 국제화에 들어가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기 기능만 확장해 가지고는 국가 전체로 봤을때는 다른 대학 공대도 다 있으니까 여기만이 가질 수 있는 대학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제주도에 있는 대학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제센터가 여기 있다는 안목에서 이것을 지원하고만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만일 제가 힘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의견 : 강인호 (농업전문가)

이 교수님께서 농업을 해서는 국제 경쟁력이 없다고 단정을 했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연간소득중에 비중이 가장 큰 것이 관광소득이라고 해서 3천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번째 가는것이 감귤소득인데 감귤이 이제 작년도 풍년기간 가격이 폭락했지만은 2 천백억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파생산업으로서 인건비 농약, 비료판매, 박스장사꾼, 운수업자, 기타수수료 다 합해 가지고 천2백억이 상회합니다. 토탈 3천 3백억이 감귤소득이 되었는데 감귤소득이 없어질 경우는 3천 3백억을 벌어들여 살던 농민을 비롯해서 운수업자, 위탁상회... 업자들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블란서 그외에 일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스페인, 모로코, 이스라엘, 이태리. 여러 나라 등등이 감귤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과 한국 중국남부에 있는 만데린 종류의 감귤은 세계 어느 시장에 가도 경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감귤수출을 2만3천 5백여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로 캐나다를 비롯해서 미국등지에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품질을 보면은 일본에서 A,B급은 국내에서 소비를하고 C급이 외국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도 지금 스페인이나 모로코 곧 중산유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제주감귤을 내보내서 한 번 현장에 가서 작년에 베를린에서도 국제농산물 무역박회출품을 했고 시카고에서도 출품을 했습니다. 대단히 우수한 품질로 인정이 됐습니다. 특히 온유에 비하면 껍질이 얇고 속에 섬유질이 약해서 바로먹고 들어갈수 있는데 다른 한 질 인 종류라든가, 크레멘탈 종류는 껍질이 두껍고 껍질이 잘 안 벗겨집니

다. 이런면에서 제주 감귤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종이고 당도라든가 산이 적당히 있어가지고 굉장히 소비자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가격면에서도 경쟁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캐나다에 160t 수출계약이 됐습니다마는 그외에도 싱가포르에서도 벨기에 서독등지에서 지금 상당 오고 있는데 절대 제주 감귤은 다른 산업, 바나나, 파인애플 다 버려도 감귤만은 제주도 생산농민들이 저버릴 수 없는 생명산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수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정책적으로 완전히 무시하고 제주도는 관광일변도의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착상이 우리 일반자들에게 있어서 제주도 감귤은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감귤산업을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품질을 향상해서 그 품질을 만들면은 무공해로 유기농산물로 해서 농약, 비료 안쓰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벌써 5년전부터 무농약 재배를 해가지고 지금 감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다면 국제사회에 떳떳하게 농약 안뿌린 무농약 감귤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상표를 붙이고 팔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습니다. 이런 면을 착안하셔서 정책당국에 반영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무역협회 이런 큰 기구에서 세계에다가 지사를 만들고 돈을 쓰고 있는데 세계전체 국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140국이 넘는데 농무간이 불과 7개 나라가 있는데 감귤이라든가 농산물 팔생각은 아예 안합니다. 전국을 보면 미국은 연간 2억불 일본도 연간 2억불 넘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산물 팔생각은 안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다른 공산품이나 팔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 고 문 승 교수

우리나라 '89년도 GNP가 약137조인데 제주도가 약1조4천억 정도될겁니다. 인구가 4200만에 50만이면 1.3%인데 1조7천억 정도되어야하는데 제주도 1인당 GNP는 전국은 약 5천불이면 약 4천불밖에 안됩니다. 지금 중요한건 감귤, 관광, 그외 고구마 이런건데 저공해산업으로 전자조립이라든지 이런것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고 바다를 향해서 원양어선이라든지 통조림공장이라든지 이런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럴려면 대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제주도 사람들은 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식회사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

고 관광이 이 교수님이 말한 동아시아 학술 문화 교육센터는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으로는 모자라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여러 곳에서 한바가 있습니다만 제주도에서 영어만 아니라 불어, 일본어, 중국어, 소련어로 강의할 수 있는 국제적인 대학을 세워서 만 명학생만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에서 와서 일년 있으면 관광객을 300만명 데려온 것에 해당됩니다. 하숙을 하고 뭐하고 하니까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원양어업도 하고 관광도 그렇고 칼호텔, 하얏트, 신라호텔... 제주도 사람은 못해요. 이것 하나 짓는데 500억, 700억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국적 상장회사가 1000개가 되지 않는데 액면가격이 21조가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상장회사는 제주은행 밖에 없어요 그게 260억정도 자본금인데, 그게 전국의 21조는 다른돈도 그렇지만 앓을것입니다만은 그 상장회사의 액면가격으로 한 2천억천원 정도에 회사가 하나 있든지 300억짜리가 7개 있어야 되는데 제주도 사람들이 주식회사 만들지도 잘 모르고 배형그 상징할수 있는 정부에서 제정은 금융적 자원을 과감하게 해서 원양어업이라든지 이런것이 있어야 되고 그 뭐 건설 회장 사장도 있습니다만은 제주도 기업도 저 시베리아든지 만주라든지 본토에 가서 진출할수 있게도 해야 되는데 제주도에 대형 건설업들이와서 제주도에 있는 기업이 할수 있는 것도 다 가져가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토에서 와야지만은 또 제주도 기업이 본토에서 앞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도 건설할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의 대형주식회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국가발전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교수님께서 제주도사람들만 의해서 개발해서도 안되고 본토사람들만 의해서 안되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자본이 국제이동이 되니까 미국사람, 중국사람, 소련사람도 와서 같이 공동으로 하게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를 그렇게 동아시아 학술문화 센타 비슷한 것을 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지금 통합해 가고 있다고 하던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도 공동체도 만들자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아시아 합중국을 만들고 수도를 판문점에 두라. 그래서 그 국가원수를 요새 1명만 두면 다투니까 한 11명정도 뒤편서 캘리포니아 하와이도끼고 소련도 끼고 중공도 끼어서 전 국가원수 11명 중에서도 전직 국가원수였던 사람 레이건이라든지 나카소네 야스히로 아니면 파케스탄 고보르, 고르바

초프도 그만두면 갖다놓고 그리고 김일성은 판문점에 노태우 대통령도 등소평도 갖다놓고 그리고 철원근방에는 국회의사당을(아시아 합중국에는 국회의사당을)가능하다면은 UN본부가 뉴욕에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남북한 군사비를 좀 줄여서 우리가 몇십억불을 들여서 판문점 근방에 UN본부를 두어서 평화지역지대로 하면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21세기 위원회에서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 이 상 우 교수

제일 마지막 얘기는 정부에서 평화시 건설이란 계획이 있었습니다. 휴전선부근에 국제도시입니다. 제주도 관계에서는 이미 한 번 놓쳤습니다마는 UN 대학이 있었습니다. UN에서 만든 대학인데, 그 대학을 처음 설립할때 아시아쪽에도 하나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결국 일본에게 빼졌습니다. 지금 동경에 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경에 UN 대학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그건 정말 적지가 제주도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계몽됐습니다.

2부 주제 “동부아 해양질서와 국제법”
“북한관광실태연구”

발표 : 김부찬 (제주대)

발표 : 허향진 (제주대)

사회 : 강근형 (제주대)

토론 : 문대탄 (언론인), 김복만 (제주전문대)

토론 : 문대탄 (언론인)

발표자이신 김부찬교수님께서는 일반적인 해양법질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영해, 어업대륙붕, 또 통행권과 전략의 문제를 가지고 현재 확립되어 있는 해양법 질서가 어떤것인지대강 설명해주셨습니다.

해양법이라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대단히 생소한 것이 되어서 법적인 고찰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일반적인 논의는 제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간에 중국이라는 것이 적대국일때는 황해 서쪽에 나라가 없이 절벽이었는데 그것이 큰 대륙이 생겨서 우리가 더욱더 관계를 맺고 통상은 더 많은 양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피차 대립적인 것이 아닌 협력적인 의미에서 법질서가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제법”이라는 소위 법분야에서도 특히 국제법은 힘의 논리가 강하게 지배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성과정에 있는 국제법을 대할때는 자기나라 자신의 약소국인 국가이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어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해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제주도 서쪽에 있는 대륙붕광구를 개발하려고 하니까 중공에서 미국, 일본에게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네가 대륙붕에 있는 석유를 파가면, 경계선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원유통은 단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나라의 대륙붕밑에 있는 원유통을 당신네가 파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좌우간 분쟁의 여지는 대단히 큰 것 같고 대륙붕 개발은 되지않고 질서문제

뿐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해양법질서가 아니라 극동의 소위 동아시아라는 것이 정치질서가 개선됨에 따라서 해양법질서 보다 해양질서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 변화의 추구를 분단고착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화해와 개방 또는 교류지향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새로운 해양질서를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컨대 제주와 그 인근해역을 동북아 해역의 중립평화해역으로 선포하고 이것을 남북평화교류의 해역으로 지향한다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군함의 통합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미 중공배가 중공기를 달고 묵호함에 들어가고, 이런 판국에 만일 북한에 대해서 통상교류방문을 주장한다면 북의 배가 제주도 근해에 와서 그리고 제주도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제주도가 따로 떨어진 섬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원산과 남포를 만약 관광항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다면 꼭 금상산 개발이 제주도 개발과 경쟁적인 것이겠는가, 아니면 제주항과 원산 또는 남포를 연결할 때 협력적인, (하다못해 양돈도 그 옆에 양돈장이 많아야 살아가는 것이니까)한반도가 공존공영할 수 있는 그러한 구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세계가 바다의 세계입니다. 옛날은 바다라는 것이 교통통신에 확막힌 장애물이었지만 오늘은 말하자면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공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때문에 아까 미국은 간접적인 지근국이라고 했지만 요즘 지정학에서는 바깥 옆에 붙어 있는 나라로 새로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평화해역으로 해서 북한의 배가 제주에 들어 올수 있다든가 또 이미 중공배들이 화순항이나 차기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단순하나 긴급하다는, 국제적으로 인정된다하지만 공산권이 배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국에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북한에 대해서도 관광적인 차원이라든가 기타 무역적인 차원에서도 인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주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이고 옛날에는 모슬포가 상해를 폭격하는 기지였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통신이나 무기체제가 발달함으로써 더욱더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 말하자면 대련, 청진, 칭따오, 또 상해까지 연결

되는 중국의 안면과 가슴으로 겨누어지는 반도와 같은, 반금과 같은 그러한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아까 우연히도 김동성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제주도를 평화지역으로 하자, 제주도가 평화지역이 될려면 제주도의 인근해를 평화해역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제주도가 전쟁의 긴장에 말려들기보다는 제주도가 평화지역이 되고 제주도의 근해가 평화해역이되어서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구상이 되어야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자원도 없기 때문에 외교하나로 중립평화라는 입장에서 제주도를 발달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제주도라는 공간이 남북화해를 위해서 기여하는 공간이 되어야지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하는 전략적 위치로 활용되서는 안되겠고 나아가서 남포나 원산 그리고 청진, 대련을 향한 관광이나 또는 동서통상의 거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 김 복 만 교수

지난 1세기동안에 국가가 국력으로 과시하는 그런 상징적인 위상을 보면 무력을 가지면 세계를 재패했고 다음에 경제가 무력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서서히 경제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 인간 심성이고 정신요소이며 이것이 환대심리다 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지는데 아무리 큰돈을 가져있다하더라도 이것이 마음씨 고운 환대심성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풀어놓고 있다는 상황들을 주시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가 심히 강하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경제의 대국인 일본과 일본을 따르는 한국이 같이 묶어도 경제가 낙후되어 있다는 중국의 힘을 따라가지 못하는, 바로 끝난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물질보다 정신은 상당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국가는 환대산업인 관광을 국가전략산업시기에서 전세계 모든나라는 관광하게 될 것이 자명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면서, 저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빈약하면 일본의 힘을 좀 빌더라도 해상 유람선을 순항시키는 그런 것을 구도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원산, 부산, 인천, 남포, 첸칭, 상하이, 타이완, 오키니와 이렇게 수려하는 관광유람선을 명명해서 “대학평화선” “대학관광선” 그 속에서 동북아

젊은이들이 같이 연구하고 평화를 지켜나가는 ,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 생각해 왔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대단히 그런 분야에 강조해 주셔서 기쁘기 한이없습니다. 마침 또 국제해양을 활용하려면 국제법과 관계되는 그런 것이 많이 적용되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그 사항을 협조, 나서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분단 40년동안 북한문제는 계속해서 연구돼 왔습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86년 까지 98건에 이런 간행물이 나왔는데 이것은 단행본 연구발표를 포함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거기에 관광에 관련된 부분은 아주 미미해서 21건에 불과하고 그것도 그 내용이 북한의 문화재정도를 기술하는 그런 상황으로서 북한의 관광산업이, 관광정책이, 지원현황이, 관광객행태가 전혀 조명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분들이 사회주의 국가에는 관광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광을 그쪽 사회주의 국가에 조명하기 시작한 것은 7, 8년전 화교를 만나서 식사하고 있는 가운데 그분이 본토를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시에 있는 화교가 중국을 벌써 몇년 전부터 자유왕래 했더니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사연을 들어본 즉 중국이 왕래를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확인받았습니다. 어느날 TV보다가 서독의 젊은이가 비행기를 타고 붉은 광장에 착륙하는걸 봤습니다. 몇년 전입니다. 서독 젊은이가 소련 폐쇄된 사회라고 하는 그런 광장에 비행기를 착륙하려면 open되지 않는 세계라면 갈수 어 쟈다 여기서 새로운 착안을 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 소련 광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 관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조명하지 못함으로서 모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중국과 소련쪽에 관광을 조명하는데 신경을 써 봤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놀라운 사항들이 진전되고 있고 우리가 감히 따라 갈 수 없는 그런 관광사업의 내용들로 진전되고 있으며 정책목표가 크게 이루어져 있고 관광사업쪽에도 아주 대단한 내용들이 이루어져 있었고 모스크바 러시아호텔은 6천실규모, 이런 것들이 벌써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같이하고 있는 북한의 관광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래서 자주 주시하기 시작했더니 그런쪽에서 서서히 내다보이는 면이 있었습니다. 허향진 교수님이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에서 중요한 대목이 나와 있었습니다. "80년대 들어서 84년 합영법 외국자본을 합작하고 받

아들여서 사업경영하겠다는 그런 것이고 '86년 총국이 관리부의 총국이 되었다는 사실과 '87년 WTO 세계관광기구에 가입했다는 것은 상당히 대단한 사항입니다. 관광을 정책적으로 국가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관광기구에 가입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87년 평양상업대학에 관광과목을 개설해서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젊은 이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80년대 후반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3천실 호텔을 건립해서 완공되지 않았지만은 금강산지역에도 활발하게 호텔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체적으로 북한을 조명하지 못하고 단면으로 보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사이에도 못느끼고 모르는 사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북한이 갖고있는 자연성과 우리가 갖고 있는 입문성에 대해서 양면성을 대립적으로 평가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아주 깨끗하고 소독 잘된 굴이 최고의 상품이라고 했던 것은 엇그제 이야기이고 공해가 없는 조금 거칠지만 이런 것들이 새롭게 각광받게 됨으로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북한은 가만히 있었지만 한국 관광산업이 성실을 이루게됨으로써 그 천연성이 덩달아 평가 상승되어지는 묘한 영향을 받게 되어서 참으로 남북관광은 이제 인문성과 자연성, 원시성 이런걸 가지고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차원에 이르렀다고 참 큰 기대도 되겠습니다만 이제 남북문제는 많은 변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구, 예술, 음악인들의 교류. 이제 내년에는 Ur 협정에 따라 서비스사업이 시장개방으로 미국 여행사 산업이 대거 우 리시장을 점거하게 되면 내년쯤 어느 비행기가 왕래하더라도 서울-평양을 오가게 되는 그런 경로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한-일문제도 상당히 진전되고 있어서 어떠한 돌발적인 변화로 급변한 남북교류도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제주도가 관광지로서 부상할 수 있는 제일의 조건은 농업입니다. 전세계의 수천 수만개의 섬이 있지만 제주도처럼 도민, 주민 스스로가 일구어서 세계적인 농업입지를 조성해 놓은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제 중국의 농업 인구가 제주도 농업 연수를 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이런데 착안하면 북한의 농업인들이 농업연수까지도 제주도에 유치할 수 있다. 이것은 먼저 발표하신 분들이 그런 연구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하게 된다면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점이 있겠습니다.

허교수님! 예측이니까 2~3년 동안에 남북관광은 어떻게 열리겠는가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